



### 비, 월드비전 에이즈 홍보대사에 위촉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은 12억 가수 비(본명 정지훈·24)를 월드비전 에이즈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월드비전은 "비는 15일 '레인 워터투어-레인스 커밍' 첫 무대인 서울 공연을 시식으로 내년 6월까지 12개국에서 35회 공연을 펼치며 '에이즈 없는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연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비는 워터투어 중 대형 스크린에 아이들의 영상이 나오는 가운데 4집 수록곡 '프렌즈(Friends)'를 부르며 사신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4. 한국, 미국,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2개 공연장에 월드비전의 에이즈 사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자선상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월드비전에 기부한다. 비는 "하루 약 8천 명, 매년 1천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고 있다는 얘기를 느꼈다"며 "월드투어로 방, '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조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1990년대 아프리카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홍보대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은 "공연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에이즈 퇴치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잡뉴스 2006.12.12〉

### 오프라인에 퍼진 블로거들의 온정... 에이즈 고아돕기 바자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나눔커뮤니케이션 서옥에서 '남아공 에이즈 고아 돕기 블로거 자선모임'이 열렸다. "보잘 것 없지만 제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기는 생명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주신 물건을 볼 때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 '남아공 에이즈 고아 돕기 자선모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나눔커뮤니케이션 서옥에서 열렸다. 이날 바자는 주최 단체도, 후원 기업도 없이 블로거들만의 힘으로 이뤄낸 행사다.

남아공에 사는 한국인 블로거 삼셋벌(35) 씨가 10월 중순 자신의 블로그에 AIDS로 부모를 잃은 남아공 고아들을 돕자고 올린 제안이 블로거들에게 반향을 얻은 것이다. 이날 자선모임에는 60여 명의 블로거가 분별 성향을 이뤘다. 손수 만든 친환경 수세미와 앞치마, 쿼드 가방, 직접 찍은 사진, 영상뉴스가 담긴 껌코더 등이 경매의 일반판매 형식으로 팔렸다. 참가자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자신이 내놓은 물건의 사연을 소개했다. 기성품 물건들은 식재는 수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낙찰됐다.

이날 모인 수익금 200여만 원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에이즈 고아들이 지극지족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드는 데 쓰인다.

〈동아일보 2006.12.11〉

### 에이즈감염인 편견해소 드라마 '길 위에 서다' 27~28일 방영



국내 최초로 에이즈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방송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함께 복권기금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2부작 특집 드라마 '길 위에 서다'(극본 서희영, 연출 신운호·김기용)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에는 탤런트 안재환·박다안 등이 출연한다. 안재환이 에이즈 감염인 동욱으로 열연을 펼친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는 연기를 실감나게 펼쳐 보인다. 탤런트 박다안은 동욱을 사랑하는 희수 역으로 출연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이해 수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드라마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길 위에 서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밤 11시부터 EBS를 통해 방송된다.

〈헤럴드경제 2006. 12. 26〉

## SC제일은행,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예방 캠페인 실시

SC제일은행은 1일 UN이 정한 '제19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사단법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공동 주관 하에 문경 1층 로비 및 정문 앞 광장에서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어'라는 주제 하에 에이즈 예방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직원 및 고객들에게 에이즈 예방에 관한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이 행사는 에이즈 확산에 따른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감염인의 인권 향상 및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인 'Living with HIV'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Living with HIV'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사회공헌활동으로서 HIV/AIDS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감염이부와 상관없이 모두 시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각 나라별로 에이즈 캠페인을 양성하여 시위 및 지역사회에 HIV/AIDS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06. 12. 1)

## 정애리, 에이즈 예방교육 펼쳐

달리는 정애리씨가 청소년 에이즈 예방을 위한 1일교사로 나섰다. 정씨는 30일 서울 문래중학교에서 이 학교 2학년 4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교육을 펼쳤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그녀는 이 단체가 유니세프와 함께 펼치고 있는 청소년 에이즈예방 교육 '레슨 포 라이프(Lesson for Life)'의 강사로 학생들 앞에 섰다. 정씨는 학생들에게 '에이즈의 날(12월1일)이 왜 만들어진 것 같느냐'고 물은 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 병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에이즈는 예방이 가능하고 쉽게 신명되지 않는 질병인데도 사회의 그릇된 시선으로 감염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편견을 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슨 포 라이프'는 에이즈의 날을 즈음해 GMC(어린이를 위한 전세계 NGO 연맹)가 펼치는 운동으로 국내에서는 한국 월드비전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6. 11.30)

## 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에이즈예방 앞장

스리 스리 라미 상카르 등 인도의 종교 지도자들이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에이즈와 관련된 차별과 낙인찍기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고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22일 보도했다.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이종나간(inter-faith) 합동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사재난의 재기 바스레키는 "종교가 다르고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치료 제공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기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재난은 타밀나두주 2000여개 마을에서 2432개의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상노동자들의 보호 문제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논의되었다.

안부매니 리마노스 인니 부거장관은 "약물 중독자들에게 '안전한 바늘'을 제공하는 법안과 에이즈감염인 차별금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0월 현재 인도 에이즈 감염자는 아시아 전체의 66.3%에 달하는 570만명이었다.

(내일신문 2006. 11. 30)

## 엄정화, 에이즈 퇴치 바자회에 성금 전달

배우 겸 가수 엄정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에이즈 퇴치를 위한 바자회 성금을 전달한다.

여성지 코스모폴리탄 코리아는 '세계 에이즈의 날'인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임구정동 데이블2025 이벤트홀에서 바자회를 마련해 수익금을 모금회에 전달한다.

이번 바자회에는 국내외 유명 의류 및 화장품 브랜드 70여 업체가 동참한 예정이며, 엄정화는 이날 오후 9시 00분 태권극립 캐리지에서 마련되는 코스모폴리탄 장가 6주년 파티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한다. 그는 이 সভ지의 기획기사 '8인의 스타, 에이즈에 대해 말하라'에 참여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6. 11. 30)

##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정부-시민단체 한자리서 논의

HIV/AIDS 감염인 인권보호와 예방이라는 상민된 정책목표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한자리에 참석하는 에이즈예방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회가



얼린다. 민주노동당 현애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 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7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후진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신랄하고, 비관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갖는다.

토론회는 지난 9월 정부 개정안이 제출된 한편 현애사 의원이 지난 14일 제출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정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메디칼투데이 2006. 11.26>

삼진제약 항에이즈 신물질, 美보건원서 연구비 지원

항 에이즈바이러스(HIV) 효과성이 입증돼 현재 미국에서 단일 외용제로 개발 진행중인 삼진제약의 항바이러스 신 물질이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병용요법(카테알) 외용제 개발 프로그램으로 채택돼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 23일 삼진제약과 에이즈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미국 퀘스트사에 따르면 피리미딘디온(pyrimidinedione) 계열 합합물 능 삼진제약의 항바이러스 신물질에 대해 기존의 단일 외용제 개발 추진에 이어 병용요법(카테알) 외용제도의 가능성도 인정받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NICHD)로부터 제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됐다.

삼진제약의 항 HIV 신물질은 역전자 효소 억제 및 숙주세포 내 바이러스 진입을 억제하는 이중작용으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항 에이즈바이러스 화합물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투데이 2006. 11. 23>

美에이즈환자 평균 생존기간 24년

에이즈 환자의 생존 기간이 연장되면서 에이즈가 만성 질환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과대학 공중보건학 교수 마루스 슈메크먼 박사는 의학 저널 '의료' 11월호에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에이즈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24년이라고 밝혔다. 슈메크먼 박사는 전국 18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1만4천여 명 가운데 7천여 명의 기록을

분석할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1993년 에이즈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이 7년에 불과했으나 90년대 중반 항 바이러스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병 중 소요되는 1인당 치료비용도 90년대보다 40% 이상 늘어난 6만1천8천 달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1,400달러에 이르는 약값을 포함, 한 달 평균 치료비용을 2,100달러로 집계했다.

<경향신문 2006. 11. 13>

애플, 아이팟 나노 '레드' 출시, 에이즈 퇴치에 기부

애플컴퓨터코리아는 7일 아이팟 나노 레드(iPod nano RED) 스페셜 에디션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레드(RED)는 전선적인 밥 그룹 U2의 리더싱어인 보노와 바비 슈라이비가 공동으로 주창한 프로젝트로, 이들은 현재 애플을 비롯한 여러 회사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의 AIDS 퇴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팟 나노 레드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국제 기금으로 식성 전달돼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아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애플은 에이즈 퇴치 운동을 돕기 위해 아이팟 나노 레드가 1대씩 판매될 때마다 10달러를 국제기금에 기부할 예정이다.

<메디투데이 2006. 11. 7>

에이즈예방 대학생 광고공모전 동의대 대상

제2회 에이즈 예방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서 동의대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이상진, 이영수, 우철희씨가 제출한 4편의 신문광고 시리즈 '우리는 하나입니다'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는다. 수상작은 AIDS의 영구 근지를 각각의 사뭇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받고 따뜻한 이미지로 상징화했다. A는 '안아주세요', B는 '혼자 두지 마세요', D는 '한 걸음 더 다가주세요', S는 '먼지 손을 내밀어 주세요'를 각각 표현했다.

대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기획사와 전파, 인쇄 등 3개 부문에서 전국 100여개 대학 990팀(2천 304명)의 1천380편의 작품이 경쟁했다.

<부산일보 2006. 11. 6>

## 질병관리본부,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발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HIV감염인/AIDS환자의 인권보호, 차별과 편견 해소를 돕기 위해 그간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된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는 언론과 미디어 등에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에이즈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제시하여 에이즈에 대한 객관적인 취재보도를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언론과 미디어 등이 에이즈를 단순 사건 소재로만 여기지 않고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내용은 크게 에이즈에 대한 기본 상식, 관련 통계, 에이즈 예방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즈 길라잡이'와, 에이즈 취재 보도 시 고려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정리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으로 구성되어 에이즈 관련 기사 작성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는 에이즈·결핵관리팀 정책고객 및 한국언론재단 기자연수과정 교육생에게 배포되며 언론·홍보·광고 등 관련 학과 및 학회, 전국 시·도 보건소,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6. 11. 14〉

## 외국인 에이즈예방 자원센터 6일 문 열어

'외국인 에이즈예방 자원센터'가 6일 서울 성북동에 문을 열었다. 자원센터는 6층(내지면적886평, 연건평261평) 규모로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진·상담 및 복지지원 등 에이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별 동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리고 외국인 에이즈 감염인이나 환자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센터 내에는 검진 상담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커뮤니티실(베트남, 몽골, 필리핀, 중국, 태국) 등을 마련하여 외국인 방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문을 연 센터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에이즈 예방은 물론 외국인의 인도적 지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월= 2006. 11. 6〉

## 에스디, 에이즈 진단 시약 WHO 등에 공급

에스디는 HIV 진단 시약을 세계보건기구 등에 납품하는 계

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공급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로, 수량은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고 에스디는 밝혔다.

에스디는 WHO기금과 WHO본부에 비롯해, WHO 각 지역별 본부, UNADIS, 각 국가별 사체 프로그램 협력기관, WHO를 통해 B형 간염신약키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관 등에 에이즈 진단시약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일리 2006. 11. 2〉

"에이즈는 당뇨같은 만성질환일 뿐" 편견해소 공익광고 방영  
질병관리본부의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인 차별을 해소하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11월1일부터 TV, 케이블 방송,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익광고를 방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익광고는 '에이즈 바로 알리기'에 초점을 두었으며, 우리 사회가 감염인에게 따듯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다가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 인권향상과 차별해소를 위해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TV제작·방영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쿠키뉴스 2006. 10. 31〉